광주 3명중 2명 재산 ↑…국회의원 평균 18억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 공개

장병완 76억…국회의원 1위
전남이 광주보다 평균액 높아
20대 의원 79%가 재산 증가

광주·전남지역 재산 공개대상자 중 최고 재력가는 77억원을 신고한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선 76억원을 신고한 장병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공직자 재산공개**=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광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등 공개대상자 평균 재산은 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억55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가량 늘었다. 올해 처음 재산을 공개한 김종식 부시장은 예금 29억여원 등 40억3700만원이다.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18명(64.3%)으로 3명 중 2명꼴이다. 10억대 이상 재력가는 김 부시장 등 7명, 20억대 이상은 임우진 서구청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등 4명이다.

윤장현 시장은 2억4000만원대 토지와 6억6000여만원의 예금 등 8억2300만원을 신고해 작년보다 1억5300만원이 줄었다.

5개 구청장의 평균 재산은 13억여원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이 22억원대 예금 등 2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19억원대 건물 등 20억6000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6억8900만원, 최영호 남구청장 5억5800만원, 김성환 동구청장은 4억3800만원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100만원이 증가한 6억74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시의원 21명 중 가장 많은 사람은 이은방 의장으로 21억5800만원을 신고했다.

◇ **전남 공직자 재산공개**=이낙연 전남지사는 토지(5억5700만원), 건물(6억7200만원) 등 모두 15억2200만원을 신고했다. 고향인 영광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땅, 임야 등 공시지가 상승으로 5400만원 가량 재산이 늘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32억2200만원,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4억91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와 시장·군수 등 재산공개 대상 자치단체장 22명 가운데 12명(54.5%)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김철주 무안군수가 47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3800만원 늘어난 6억100만원을 보유했다. 도의원 가운데는 임명규 의장에 이어 명현관(66억4300만원) 전 의장이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20대 국회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18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지난해 광주·전남 국회의원(18명)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액은 모두 328억9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재산은 18억2700만원이다.

광주 지역구 의원의 총 재산은 144억1400만원으로, 의원 한 명당 평균 재산액은 18억100만원이다. 전남은 184억8000만원으로 의원 한 명당 평균 재산은 18억4800만원이다.

전체 재산액수로는 장병완 의원이 76억400만원을 신고,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주승용 의원(50억8800만원)·황주홍 의원(27억8500만원)·김동철 의원(23억4200만원)·이개호 의원(20억7700만원)·박주선 의원(17억6200만원)·윤영일 의원(16억8100만원)·이용주 의원(16억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최경환 의원으로, 2억3000만원이었다. 이어 권은희 의원(2억6700만원)·이정현 의원(6억1900만원)·송기석 의원(6억6500만원)·김경진 의원(7억7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79.3%인 237명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2015년)에 재산을 늘린 의원의 비율 65.2%보다 늘어난 것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초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전년도 1위를 기록한 안철수 의원(1195억원)을 3위로 밀어내고 선두를 차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박근혜 37억원…재임중 12억 증가

황교안 25억…4억여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4년 재임 기간 1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896만 원 늘었다. 이는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1억7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공개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한 달에 약 1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 예우는 사라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6000만 원 늘어난 25억2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병우 393억원…신고 때보다 1억 줄어

안종범 16억·정호성 신고 유예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지난해 10월 말 사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대상이기 때문이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관보를 통해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의 재산신고 내용은 지난 1월 25일 관보를 통해 퇴직자 재산공개 형식으로 공개됐다고 인사혁신처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은 392억60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이전 신고 때보다 1억666만 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이전보다 1억3천만 원 감소한 15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3인방 비서관 중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구속수감됨에 따라 퇴직자 재신 신고를 유예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상곤 '문재인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 박영선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단장 인터뷰

"호남정신 국정 동력으로 계승…진정성 믿어달라"

호남 없이 민주당 없어…지역발전 공약 반드시 지킬 것

문재인 대선 경선 캠프의 김상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호남 경선 승리를 위해 광주와 서울을 오르내리며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둔 23일 김 위원장을 만나 경선 대비 전략 등을 들었다.

- 문 후보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 흐름을 어떻게 보나.

▲ 직접 느낀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보다 더 역동적이었다. 조만간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확실하게 준비된 후보로 여기는 것 같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정권교체의 기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지역민들은 아직도 문 후보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 문 후보의 정치철학은 호남정신과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정신은 5·18이고, 정의의 편에서 불의와 맞선 민초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문 후보는 5·18 정신에 따라 대학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왔다. 한마디로 호남의 정신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의 더불어 성장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으며 호남발전과 부흥에 후보 본인이 큰 의지를 품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전남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호남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호남정신을 국정운영 동력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 후보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부디 거두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

- 경선 결과를 예측한다면.

▲ 문 후보가 낙승할 것이라고 본다. 경선은 끝이 아니라 본선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경선이 각 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서, 화합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친문 패권세력이라는 지적이 있다.

▲ 동서고금, 정치체제의 변화와 차이를 막론하고 계파와 정파의 존재는 우리 역사와도 함께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당에는 문재인계도 안희정계도 이재명계도 있다. 캠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패권세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패권정치라는 비판은 지지율 1위의 대세후보가 감내해야할 숙명이라고 본다.

- 경선 앞두고 호남민에게 당부한다면.

▲ 호남은 우리당의 뿌리이자 근간이다. 호남을 빼놓고선 민주당을 논할 수 없다. 지난 4·13 총선에서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민심의 엄중함을 새삼 깨닫고 문 후보를 포함한 우리당의 모든 구성원이 깊이 성찰해왔다. 호남정신을 계승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는 바로 문 후보다. 호남 지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文 '나홀로 대세론'에 불과…역전 자신 있다"

새 나라 건설 위해 적폐청산…安은 호남이 바라는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박영선 국회의원 멘토단장도 호남 전역을 누비며 안 지사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들었다.

- 그동안 친노(친노무현) 세력과는 거리를 둬왔는데 안 지사를 돕게 된 이유는.

▲ 여러 이슈에 대해 문자를 주고 받았었고 (안 지사가)2년 전에는 제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교류를 해왔다. 처음부터 앞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 지사의 '선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분노가 빠졌다"고 비판했을 때 안 지사가 저한테 "선배님 너무 힘들어요"라며 도와달라고 했다. 안 지사는 "분노를 정치세력화해서는 안 된다. 분노가 부딪치면 피바람이 분다"고 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안 지사는 제 북콘서트에 와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다. 정의로 행사되는 폭력이라도 좋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 민주당 호남경선 결과를 예측한다면.

▲ 문재인 캠프에서는 60%를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저희는 문 전 대표가 50%를 못 넘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역전이 가능하다.

- '문재인 대세론'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 '나홀로 대세론'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도가 3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안 지사는 상승세다. 대세론이 깨지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 친문패권주의 논란이 계속되는데.

▲ 최근 '전두환 표창 자랑'에 비판하자 네거티브로 규정한 것이 친문패권주의다. 그날 광주에 갔는데 한 여성분이 "내 아들이 그때 죽었다. 전두환 세 글자는 듣기도 싫은데 TV에서 그걸 자랑하느냐"고 하더라. 누가 이런 사람을 대변해야 하나. 민주당이 해야 하지 않나.

- 안 지사는 적폐청산과 대통합 중 대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 적폐청산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포비아공화국'이 된다.

- 경선 앞두고 호남민에게 당부한다면.

▲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은 '문'을 지지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한다. 또 '전두환 표창' 논란이 일었을 때 캠프 TV토론본부가 골랐다고 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호남인들이 바라는 정권교체는 안 지사가 후보가 되면 다른 누구보다 확실히 이뤄진다. 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이회창'이 생각난다는 얘기가 있다. 비호감도 50%인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 두 사람 중 한 명이 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융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 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융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물건추천

▣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역 2분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룸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
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룸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운천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7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